

성인학습자의 배움 의미에 관한 연구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the Meaning of Learning in Adult Learners

Na-Rae Ba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배움을 시작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배움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배움은 인간화이며 인격화이다. 배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배움의 본질은 타인과 나의 삶에 대한 이해이며 공동체를 배우고 사회적 자본을 익히는 계기가 된다. 인간에게 배움은 유목적인 판단력을 주며 사회환경과의 끊임없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인류에게 생산적 삶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배움은 자기 관리, 다양한 세대와의 의사소통, 자아실현 등의 계기를 마련해 주며,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 시킨다. 우리에게 배움은 개인의 존재론적 의미, 실존적 의미를 찾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주제어 : 성인학습자, 학습동기, 사이버대학교, 배움, 인간의 이해

Abstract The study of the meaning of learning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causes people to start learning. Learning is humanization and personification. Learning is a basic human instinct, and the essence of learning is to understand other people and my life, learn community, and learn social capital. Learning gives humans nomadic judgment an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productive life for mankind, who must live in constant harmony with the social environment. Learning provides opportunities for self-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various generations, and self-actualization.

Key Words : Adult Learner, Learning Motivation, Cyber University, Learning, Human Understanding

1. 서론

ICT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교육에서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은 교육용 매체로 활용되며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지식경제는 교육의 장소를 교실이라는 기존방식에서 컴퓨터 가상현실로 벽이 없는 교실에서 공부하며 이른바 교실혁명이라 불리기도 한다[1]. 21세기 글로벌시대 배움장소의 다양화로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배움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자

는 여러 형태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최근에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사이버대학교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전문영역을 개발하는 학위과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5]. 사이버대학교는 인터넷 기반 학습으로 융통성과 편리성으로 이루어진 교육시스템이다[1].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시스템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을 받을수 있다. 온라인 대학의 활성화는 손만 뻗으면 잡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1968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고등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victory0302@hanmail.net)

교육에서 최초 방송대학 설립근거(교육법 제114조의2 신설, 법률제2045호)를 마련하여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를 하여 2년제 전문대학과정 5개과(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로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원격학습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2]. 이후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9개 사이버대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기준 전국 21개교가 있다. 2020년 21개교 사이버대학교 전체 등록 학생은 25,568명(2016년 26,256명), 졸업생은 2014년 26,287명에서 2018년 기준 326,876명으로 4년만에 졸업생은 12배나 증가하였다[3].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학습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대학은 배움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대학은 어느 순간, 어느 관계, 어느 곳이나 신선한 배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교육을 이제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1] 성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움을 학습수요자가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이행하게 하였다[7].

교육의 의미적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교육의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핵심가치가 있었다면 미래 교육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에게 웰빙(Well-Being)에 핵심역량을 찾아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교육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가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4].

성인학습자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일까? 배움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의 전인적인 성장을 쌓는 목적을 가진다. 배움을 통해 자아실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인에게 배움은 의미 있는 삶을 이끌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반성적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배움을 통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즉 배움은 자아정체감을 찾는 계기가 된다. 성인학습자에게 배움은 자기주도 학습과 연결되는데, 타인에 의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학습함을 의미한다[4]. 배움은 자아를 넘어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동의 노력을 배우게 하는 장이 된다. 그러나 배움의 경험은 일정하지 않다. 전쟁을 겪는 세대들의 경험에 의한 배움, 디지털세대의 경험에 의한 배움과 공감은 서

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움의 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자 하며,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의 배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평생교육환경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성인학습자와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는 성인과 학습자가 결합된 용어이다. 성인(Adult)의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을 칭하며, 학습자(Learner)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인학습자(Adult Learner)는 학령기 이후에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익히는 학습경험을 가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시말해 성인학습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각자 역할과 책무를 다하며 한정된 시간에 새로운 학문 분야를 공부하거나 자격취득을 위해 학습하는 사람을 이른다[5-7]. 최근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성인 학습자의 교육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인학습자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21개 사이버대학교가 운영되며 성인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8]. 특히 2001년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으로는 최초로 문을 열면서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그 이후 9개 사이버대학교에서 6,100명의 입학정원으로 첫 대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7개 사이버대학 23,550명(2005년), 21개 사이버대학 33,410명(2013년)으로 입학생이 늘면서 큰 성장을 하였다. 2017년 21개 사이버대학교의 전체 재학생수는 105,549명으로 사이버대학교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하였다. 원격대학의 큰 성장 배경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격대학은 경력의 끊어짐 없이 일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원격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교육수요자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 형태로 가장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는다. 셋째, 과거 능력이나 학벌 위주의 교육보다 시대에 적합한 활용가능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대흐름에 맞는 자격증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

한다. 넷째, 원격대학은 복합교육(Blended Learning)의 형태를 유지하며, 유비쿼터스(Ubiquitous)교육환경을 구현하였다. 즉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수요자 선택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교육형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1,2]. 다섯째, 사이버 대학의 학습자는 오프라인 대학의 학습자와 달리 배움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특성이자. 다시 말해,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학습정체감 구축이 빨라서 자기반성적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7].

2.2 배움의 의미

21세기 평생학습시대에 배움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朱子)는 배움이란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과업이며 배움을 통해 전수한 학문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 세대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12]. 배움은 각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삶 속에서 스스로의 쓰임새를 만들어가는 전생애적인 실천과정이다. 배움은 자신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며, 배움을 통해 인간은 성숙할 수 있으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다. 배움은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며 덕을 실천하게 한다[9].

배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공감을 통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 실천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다. 배움은 매순간마다 일어나며 전생애적 삶 전반에서 변화를 촉진 시킨다. 모든 사람은 배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지닌다. 배움을 통해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며 인간의 영혼을 값지게 한다. 배움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 합리적인 일이다. 배움은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이며 참된 자아와 삶을 찾는 과정이다[12]. 배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자신의 사회적인 의미와 쓰임을 깨닫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2.3 배움의 특징

배움의 특징은 주체의 설정, 행동 여부, 계획성, 변화 가능성에 있다[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배움은 인간에 관한 일이다. 배움의 주체는 인간이며 동물, 식물은 배움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배움은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행동은 실천적 행위이며, 배움은 변화를 위한 특수 목적적인 과정이 된다. 셋째, 배움은 교육성과를 위한 유목적성 계획을 전제로 한다. 교육성과에 대한 계획은 주체나 대상이 된 인간의 행동

만이 교육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 목적에 의한 계획과 달리 무계획적으로 우연에 의해 나타난 것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 아울러 누구의 계획인가에 따라 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문가에 의한 계획이어야 한다. 넷째, 배움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행동은 목적된 계획에 따라 달성여부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계획 이전의 행동과 계획에 따른 활동 이후의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교육은 사람의 행동에 목적을 지니며, 계획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은 계획에 따라 주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대상이 무엇을 익히게 하고, 특정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 원하는 '사회적인 인간 행동'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다.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양적조사가 가지는 단일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심층적이며 인간에 관심을 갖는 방법론이다. 질적 연구는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다.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인식세계 속에서 함께 들어감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경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성인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본 연구자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강생이 매년 1000명이 넘는 사회복지전공 교수자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까지 학생상담과 지도를 맡으며 학생들과 긴밀하게 활동하였다. 연구자는 오랫동안 성인학습자의 학업지도를 하며 그들의 배움에 대한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성인학습자의 배움에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알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적 방안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연구목적 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사회복지교육자로서 매우 다양한 위치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비록 기대되는 결과는 방대할 것이나 성인학습자의 배움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인학습자를 이해하는 교수자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자 다른 이력을 가지고 사이버대학교 1학년에 진학한 성인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구글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다. 성인학습자의 배움의 본질을 형성하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첫째, 배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둘째, 배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배움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면담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화면을 녹화하였으며 이후 기술내용을 전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례1은 48세 여성으로 학부석사박사를 졸업하였고, 직업은 연구원이며, 종교는 무교이다. 사이버대학교 1학년에 진학하였다. 사례2는 38세 남성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직업은 자영업, 종교는 불교이다. 사이버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였다. 사례3은 58세 여성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이버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였으며 직업은 주부이며, 종교는 천주교이다.

4.2 배움의 시작

배움의 시작은 연구참여자마다 상이하였다. 성인학습자 배움의 시작은 자기 관리 및 마음공부[9], 다양한 세대와의 의사소통[10], 자아실현과 자아 계발 측면[11], 배움을 촉진 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라 할 수 있다.

[사례1] 배움의 시작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면서 저의 모자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대학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구요. 이래저래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제 직업상 혼자 서적과 학술지를 보며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지식의 트렌드를 알고 싶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과정까지 모두 마쳤지만, 정규교육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느끼던 제 삶에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있었지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사이버대학교를 입학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새로운 내용도 접하면서 원지 모르게 저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겸손함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례2] 배움의 시작은 지인의 추천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대화도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인이 사이버대학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최고경영자과정도 생각해보았구요.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공부도 하고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을 다닐 때도 학교에 마련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다른 나라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동산컨설팅관련직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 직업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넓은 세상 제가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매우 흥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3]배움의 시작은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쓴 중반을 넘어서 졸업 했어요. 나는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요. 이후 이른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살면서 학력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크지 않았어요. 마흔즈음 저는 주변의 소개로 꽤 큰 병원에서 보조 업무를 맡아서 약 1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력서도 필요치 않았기에 저의 고등학교졸업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어느날 병원에서 평가를 받는 계획이 발표 되었고, 구성원들의 이력서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시점에 병원에 사표를 내고 딸의 도움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입학하여 3년을 졸업하였지요. 이후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4.3 배움의 의미

배움의 의미는 자아성장 및 성찰, 넓은 세상을 만나는 기회, 자아실현으로 나타났다. 한상길[10]은 배움은 인간화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배움을 통해 인생경험 및 지혜, 성장 및 성숙 등 인간의 품격[15]을 촉진 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사례1] 저에게 배움의 의미는 성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겸손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는 누구보다 전문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느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의 특수한 지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등을 하면서 나태해진 제 자신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구요. 세상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에 대해

새삼 진지하게 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학점이 나왔을 때, 과거 대학교 다닐 때 같았으면 애꿎은 교수님 탓만 했는데, 지금은 나의 바람직 하지 못한 생각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나를 되돌아 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례2] 저에게 배움의 의미는 넓은 세상과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온라인 공간 속에서 저는 전국의, 전 세계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저에게 산소와 같은 유일한 시간입니다. 배움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대학이었다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남을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전국의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구요. 사이버상이지만 우리는 학교와 학과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나이를 잊고, 지역을 벗어나 친구가 되지요.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지요. 배움이라는 공동주제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되지요. 제 동기 중에는 육십 중반이신 분도 계시고, 이십대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례3] 배움은 저를 찾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의시간에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나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배웠어요. 나의 존재와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씬이 넘어서 입학하고 졸업하였어요. 대학은 선 중반에 입학하였지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면 알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 나이 이제 육십이 가까워지는데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며 근로를 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어요. 근로 장학생으로 제가 맡은 역할은 학과에 신입생들에게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후배 대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의 길라잡이를 하면서 나를 더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존재와 의미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배움이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4 배움 후 변화

배움 후 변화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었다는 것,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인생 100세시대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배움은 개인의 정체성, 존재가치를 찾게 하며, 자기성취 및 사회적응의 열망을 이끌어 주었다. 배움은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 실존적 의미[10]를 찾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1] 배움 후 변화는 삶에 대해 진지함을 한스폰 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되돌아 보

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겸손함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저의 내적 성숙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저는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사례2] 배움 후 변화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게 되면서 세상은 넓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대학생때 교환학생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전국에 계신 학생을 만나고 해외에 계신 학우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삶과 인생의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세대를 뛰어 넘어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찌들어 때로는 웅졸한 자신을 보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희망도 생기고 다양한 분들의 경험을 통해 웅졸한 제 자신을 변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넓은 세상으로 한걸음 내딛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버대학이 아니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역과 세대를 넘은 많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는 꿈도 꾸지 못했겠지요.

[사례3] 배움 후 변화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쓰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당당하기 했지만, 대학 입학 후 더 소신을 가지고 인생 100세 시대 제가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움기간 동안에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대학생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구요. 저도 대학생활을 하다보니 자녀들이 말하는 대학과정이나 대학생활을 이해하여 자녀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5. 결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배움을 시작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배움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배움은 인간화이며 인격화[10]이다. 배움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배움을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이해하며 사회적 자본을 익힌다[13]. 배움은 사람들이 유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사회환경과 끊임없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인류에게 생산적 삶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배움은 자기 관리, 다양한 세대와의 의사소통, 자아실현 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켰으며,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 실존적 가치를 찾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질적연구인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배움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전달하는데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배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간접경험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A. Giddens & P. W. Sutton (2017). *Sociology* 8th Edition. Seoul : EUL-YU.
- [2] <https://www.knou.ac.kr/knou/740/subview.do?epTicket=LOG>
- [3] <http://www.cuinfo.net/home/eudc/statistics.sub.action?gnb=55&gubunNm=age&sttYear=2020>
- [4] J.G. Noh & H.S. Kang. (2021). Reconceptualiz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Self,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9(3), 77-103.
DOI : 10.25051/jner090304
- [5] N. R. Bae.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Focused on Cyber Univers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197-211.
DOI : 10.5762/KAIS.2018.19.12.197
- [6] N. R. Bae. (2019). A Study on the Motivating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People in Choosing Major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96-102.
DOI : 10.5762/KAIS.2019.20.1.96
- [7] N. R. Bae. (2020).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82-191.
DOI : 10.5762/KAIS.2020.21.12.182
- [8] J. H. Kwon. (2013).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Learner Support System for Adult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 of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the U.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9(4), 123-148.
- [9] H. J. Paek. (2020). A Study on 'scholé' for Aged Socie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0(2), 1-30.
DOI : 10.26734/JFE.2020.10.02.01
- [10] S. K. Han. (2010). A Study on Third Agers Who Reregister University for Erudition. *The Journal of SEC*, 2(1), 1-12.
- [11] S. H. Lee. (2017). A Case Study on Mature 'Women' Learners' Undergraduate Education

Experiences at 4-year Universit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3(4), 25-49.
DOI : 10.26857/JLLS.2017.11.13.4.25

- [12] J. H. LEE. (2017). A Study on the spirit to learn from Ju Ja in the Poetry of Toegye. *Toegye Studies Papers*, 29, 121-140.
DOI : 10.31781/toegye.2017..29.005.
- [13] H. S. Choi & J. S. Han. (2010).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as the Erudition Approaches. *The Journal of SEC*, 2(2), 47-59.
- [14] H. S. Choi. (2010). The Recommendations of Lifelong Learning City As ICON for the Space of Erudition, *The Journal of SEC*, 2(1), 27-38.
- [15] S. K. Kim. (2018). Demographic cliff, Aged society, Reactive approach, Proactive approach, Lifelong erudi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8(3), 45-62.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364017>.

배 나 래(Na-Rae Bae)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가족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문화복지, 복지융합
- E-Mail : victory0302@kycu.ac.kr